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송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윤덕환	면담자	김순옥		
면담장소	명진공예사	면담지원	정지선		
면담 일시	2022년 9월 21일	회차	2	시간	1시간 4분 9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1697				
구술 개요	어린시절, 부모님은 장사를 하였고 형편이 어려웠음. 85년도부터 5년간 보르네오 가구 회사에서 손잡이 납품함. 90년도에 송림동에 와서 2~3년 동안 신흥동, 가좌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송림동으로 옴. 목상자, 뽕틀, 배변봉투함, 볼링장 부품, 카페 인테리어 등 다양한 일을 함. 나중에 느티나무로 편하게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들고 싶음.				
주요 색인어	어린시절, 햇배, 부모님, 장사, 도시락, 연로, 교통수단, 신문, 자영업, 목공, 송림동, 목상자, 목재, 수입, 부르네오 가구 손잡이, 세파티야, 오성체육, 납품, 야구 방망이, 의자, 목선반, 기계, 북항, 칼리갈리의 밀실, 신복관, 협업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어린시절 부모님			00:00:46~ 00:08:56	▷ 활동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 초등학교 때 몸이 약했음. - 부모님은 시장 한구석 노상에서 장사하셨음. 수입은 겨우 먹고 살 정도. - 학교 갈 때 도시락은 김치에다가 보리밥이었음. 64~65년쯤, 연로는 석유 골로나 연탄을 쓰고 가끔 아궁이에 나무도 땔음. - 교통수단은 주로 걸어 다님. - 한 3~4년간 신문 돌리느라고 제물포에서 하인천까지 경인철도 타고 다님. - 용현시장 안에 한일극장이 있었음. 지금 보훈병원 앞에 3동사무소가 있었음. 독쟁이 고개 있는 곳에 4동사무소 있었음. - 그때는 판자촌이었고, 지금은 개발해서 아파트, 빌라 들어옴.					
2. 목공 사장님			00:08:57~ 00:12:19		
- 90년도부터 명진공예 자영업함. - 매일 일 끝나면 한 잔 먹고 들어가는 게 추억임. - 90년도에 송림동에 와서 2~3년 동안 신흥동, 가좌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송림동으로 옴. - 중학교 다닐 때, 평화시장 건너편에 시장이 또 있었음. 거기에 도원 극장이 있었고, 서희 아파트 짓기 전에 그쪽 길에 목공소가 많았음. - 철거되면서 그 목공소에 있던 공예사들이 다 송의동으로 옴.					

3. 보석함 목상자	00:12:20~ 00:15:05	
- 목상자 안에는 인조 다이아몬드를 담았음. - 한 달에 100~150개를 납품함.		
4. 나무이야기	00:15:06~ 00:18:46	
- 북향 목재상 주로 이용 - 가서 직접 사 옴. - 목상자는 원자재 재단하고, 귀탕이 다 따고, 조립하고, 칠해서, 쪼개갖고, 인쇄해가지고, 다시 조립. - 원형 계단은 목재상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재단해서, 구멍 뚫고, 빼빠치고, 사포함. - 전에는 모공 본드 썼는데, 지금은 좀 튼튼하고 빨리 굳는 타이틀 본드 쓰고 있음.		
5. 인천의 가구공장	00:18:47~ 00:26:24	
- 30대 때 수입은 먹고살고 술 먹을만한 정도 - 보르네오가구에 납품한 손잡이 종류는 한 20가지, 수량은 한 달에 한 2~3천 개 정도 됨. - 그 당시 세파티야라는 원목 사용 - 85년도부터 5년 정도 가구공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나와서 명진 공예 차림. - 그 당시에 인천에 장인가구, 에몬스, 이노센트, 동서가구 등 유명한 가구 공장들이 많았음.		
6. 오성체육사	00:26:25~ 00:30:44	
- 오성체육에는 능목, 뽕틀, 평균대, 체육관 의자 같은 거 납품. - 지금도 오성체육과 거래함. - 군용 부품 넣는 박스 1~2년 함. - 나무는 미송 사용		
7. 목상자 보석함(2)	00:30:45~ 00:31:25	
- 해외 어느 나라에 수출되었는지는 모름. - 주로 나가는 거는 한 다섯가지 정도 되고, 빅사이즈도 있었음.		
8. 특별한 제품생산	00:31:26~ 00:33:29	
- 배변봉투함 100개 정도를 미추홀구청에 납품함.		
9. 보석함 목상자(3)	00:33:30~ 00:33:54	
- 자작합판 사용		
10. 특별한 제품생산(2)	00:33:55~ 00:35:49	
-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문함. - 하나에 15만원		

11. 야구 방망이	00:35:50~	
- 야구 방망이 하나 만드는데 한 20분 걸림.	00:38:29	
12. 공예인 기능대회	00:38:30~	
- 30살 전에 공예인협회에 가입했다가 40대에 그만둠.	00:39:17	
- 기능대회 나간 경험 없음. 앞으로도 나갈 생각 없음.		
13. 비전(1)	00:39:18~	
- 앞으로 의자를 좀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보고 싶음.	00:41:51	
14. 커피숍 인테리어		
- 스타벅스 강남점 벽면 인테리어 작업 함. 지금도 주문 들어오면 할 수 있음.	00:41:52~	
- 인천에는 레몬트리라는 개인 카페 인테리어 함.	00:43:39	
- 불링장 부품 납품.		
15. 도료, 채색, 도장		
- 간단한 것만 여기서 채색하고 도료를 함.	00:43:40~	
- 큰 것들은 김포에 있는 도장 공장에 맡김.	00:45:08	
16. 기계이야기		
- 띠톱, 코너로킹, 축경사, 자동대패, 수동대패, 절단계, 보르방, 면담자 등의 기계가 있음.	00:45:09~	
	00:49:00	
17. 나무이야기(2)		
- 뉴송, 멀바우, 아카시아 집성목들을 북항에서 사옴.	00:49:01~	
- 소노콜린이라는 장미목은 수입도 잘 안되고 다루기도 어려움.	00:54:07	
- 나중에 의자 만들 때는 느티나무로 하고 싶음.		
18. 유명한 체인점	00:54:08~	
- 칼리갈리 박사 밀실, 신복관 등 체인점 인테리어 함.	00:58:56	
19. 비전(2)	00:58:57~	
-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들고 싶음.	00:59:34	
20. 송의 목공예 마을		
- 이렇게 거리로 남아 모여있는게 좋음.	00:59:35~	
- 자기 주특기들이 달라서 협업은 힘들.	01:04:09	